

# 우리나라 제래공업의 연구성과와 과제\*

이 철 우\*\*

## Research Trends and Issues of Traditional Industry in Korea\*

Chul Woo Lee\*\*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제래공업에 대한 연구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제래공업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의 과제와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제래공업의 지리학적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수적인 면에서 상당한 연구축적이 이루어졌으며, 연구범위도 입지론적 분석에서 출발하여 특정 제래공업이나 특정산지의 발달 과정, 지역구조와 존립형태분석, 생산유통구조변화를 중심으로 한 산지존립기반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피급효과에 대한 분석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제래공업의 명확한 성격규명에 기초하여 공업지리학에 있어서의 제래공업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축적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종래의 경험적 연구축적을 기반으로 보다 핵심적 연구주체의 모색, 다양한 분석시각과 연구방법론 정립을 위한 이론적 연구가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나아가서는 현재 제래공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발·육성정책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제래공업, 제래공업산지, 지역구조, 생산유통구조, 사회적 분업

**Abstract :** This study reviewed the research trend of a traditional industry in Korea, and then suggested the research themes and theoretical groundwork for further studies. The research on a traditional industry in geography in Korea has remarkably progressed in terms of the number of studies as well as the range of research since the late 1980s. The research on a traditional industry first mainly focused on locational analysis. The recent studies are more concentrated on analyzing the developing process, the regional structure and the existing pattern of a particular industry and/or an industry district, and the studies also analyzed the essential structure for existing the industrial districts related to the change of production-and-marketing structure and the impact of an industrial district on the region. The studies are mainly empirical case studies without suggesting the theoretical ground of the significance and the necessity of a traditional industry within manufacturing geograph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industry. The theoretical research based on the existing case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develop essential research themes and methodologies. The research will focus on the problems and development programs on traditional industries

**Key Words :** traditional industry, district of traditional industry, regional structure, production-and-marketing system, social division of labor

### 1. 머리말

한국 지리학계에서 공업지리학의 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급격한 공업성장에 비례하여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다(박삼욱, 1983). 그 이후 공업지리학은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분석기법 뿐만 아니라 연구주체에 있어서도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접어들어서 한국 공업지리학은 ① 공업지리학의 다양한 분야가 국내외의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논문의 주제로 다루어져서 공업지리학 연구의 저변확대가 이루어졌고, ② 세계

\*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자유공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경제의 변화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된 공업지리학 연구의 핵심과제나 주제들이 한국 공업지리학계에도 집중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함으로써 한국 공업지리학은 연구논문의 수적인 면에서 엄청난 증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박삼욱, 1996). 이와 같은 양과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괄목할 만한 공업지리학의 발전은 대부분 근대공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근대공업의 도입이전부터 발달되어 온 재래공업의 연구는 연구자의 수나 주제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여 왔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우리나라 공업발전이 선진자본주의 국가로부터 도입된 근대공업에 의해 주도되어왔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공업화의 과정속에서 재래공업은 전반적인 쇠퇴과정 속에서도 원료, 제품, 시장의 변화를 거둬들이면서 근대 자본주의체제하에서 존립·성장하고 있는 재래공업산지가 존립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화과정의 특성 규명 및 공업지리학 연구범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재래공업연구의 의의는 적지않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생활의 질과 문화적 욕구의 고도화와 다양화의 결과 소비재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변화로 새로운 quality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quality상품은 대체로 개별성이 강하고 소량생산적이라는 성격을 가지므로 재래공업이 quality상품의 생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측면이 강하여 재래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증가에 힘입어 쇠퇴일로에 있던 산지가 활성화되거나 신흥산지가 등장하기도 하였다(박양춘·이철우·박순호, 1995; 조승현, 1985). 더욱이 최근 심각한 경제위기 하에서 고도경제성장기와 같은 공업의 지방분산을 통한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의 한계점이 노정되었다. 그러므로 근대화의 물결에 밀려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창조적으로 개발 전승시킴으로써 향토 고유문화를 창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매력을 증대시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있어서의 재래공업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이상의 현실적·학문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재래공업 연구는 하나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대공업의 연구와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 재래공업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도 1970년대 후반 이후 주로 특정 재래공업이나 특정산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발표되어 왔고, 특히 1980년대말 이후에는 재래공업을 주제로 한 박사학위논문(한홍렬, 1989; 이철일, 1991; 이철우, 1991a; 김상수, 1991)도 발표되었다. 물론 재래(수)공업연구는 지리학보다는 오히려 역사학이나 경제사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왔으며, 그의 공예나 지역개발분야에서도 연구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재래공업연구는 공동의 연구대상에 대하여 여러 학문분야에서 상이한 분석시각으로 연구되어 왔다. 재래공업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전국적으로 산재한 다수·다종의 재래공업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연고를 가진 연구자가 해당지역에 관한 정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축적이 재래공업에 관한 통일된 성격규정이나 분석시점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기초하에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래공업에 관한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재래공업연구의 성과 및 한계성 그리고 연구과제를 밝힘으로써 재래공업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우선 재래공업의 개념과 성격을 규명한 다음, 제3장에서 우리나라 재래공업의 발달과정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경제사와 지리학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고찰하여 한계점과 연구과제를 밝히고, 제5장에서는 재래공업에 관한 연구의 의의가 어디에 있으며, 공업지리학의 한 분야로서 재래공업연구의 핵심적 주제는 무엇인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의 논점을 제시한다는 의도에서 試論적으로 우리나라 재래공업의 존립기반에 대한 연구성과를 고찰하였다.

## 2. 재래공업의 개념과 성격

재래공업이라는 용어는 지극히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성격도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규정이 되지 않은 실정이다. 재래공업은 일반적으로 선진자본주의 국가로부터 도

업된 근대공업과 대비되어 근대공업 도입이전의 봉건사회로부터 발달되어온 고유의 전통적 공업으로 이해되고 있다(박양춘 이철우, 1992).

이와같은 개념규정만으로는 그 내용이 그다지 명확하지 않으며, 특히 공업 경영형태의 역사적인 발전이라는 시각이 부족하고 공업의 전통성·향토성에만 주목하기 쉽다고 하는 견해(松田孝, 1959)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재래공업」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공업 경영형태의 역사적인 발전을 무시한 개념은 결코 아니다(合田昭二, 1971).

재래공업이라 불리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봉건사회에서 도시에서 발달한 것도 없지 않지만 대개는 농촌에서의 능가부업으로서 상업자본의 지배하에서 수공업에 기초한 가내공업의 형태로 발달한 것이고, 그후 자본주의 사회로 편입된 후에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도 못하여 근대공업으로서 자립하지 못하고 영세규모 그대로 가내공업형태로 잔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合田昭二, 1971). 이와 같은 재래공업의 성격은 해외로부터의 이식에 의해서 처음부터 공장제 기계공업의 형태를 취한 소위 근대공업을 축으로 한 「위로부터의」 자본주의화를 추진해야했던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자본주의하에서 필연적으로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재래공업은 후발자본주의 국가에 있어 자본주의 확립기에 주도산업인 선진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이식된 근대산업과는 기본적으로 상이한 발전 방향을 가지면서 여전히 뒤떨어진 생산형태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내에서 존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래공업의 기본적 성격을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재래공업」이란 개념은 한국자본주의의 후발적 성격에 의해 필연지위된 공업의 존재형태로서 단순히 전통성·향토성 이상의 역사적 내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래공업의 개념과 성격을 논의한 연구로는 李淸一(199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근대 이전부터 전승되어 오는 공업의 성격을 역사성, 제조기법, 전통성, 향토성으로 구분하고 재래공업은 역사성과 전통성이 가장 중요시된다고 보았다. 그는 근대 이전에 그 생산이 시작되고 존속할 경우에만 재래공업으로 개념규정하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생산이 중단되고 단지 역사적 유물로 남아 있을 경우 재래공업이 아닌 전통공업으로 정의

하였다. 재래공업의 성격에 있어서 그 발생시기가 근대 이전이기 때문에 手工技法이나, 독창성의 유무, 향토성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이것들은 재래공업의 필요조건으로 강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통(수)공업과의 차별성으로 제시하고 현시점에서의 존속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상의 조건을 다 갖춘 점에서 구별하여 전통(수)공업을 개념규정하였다. 이와같은 발생시기와 현시점에서의 존속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개념규정은 생산관계 측면에서의 재래공업의 성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一元的이고 지나치게 자의적인 경향이 강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특정산업」을 분류함에 있어서 발생시기와 존속여부라는 크게 보면 단일범주의 기준만을 사용하였으나 그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과, 둘째는 현시점에서의 존속여부도 특정부문 전체 혹은 특정산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재래공업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그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동일한 한지공업의 경우에도 현재 존속하지 않는 충주한지는 전통공업이고 의령한지는 재래공업으로 분류되게 된다. 반면에 板倉勝高는 재래공업은 주로 생산유통체계를 문제로 규정되는 개념인 반면, 전통공업이란 상품생산의 기법과 기능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는 점에서 구별되나 양자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특별히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板倉勝高·北村嘉行, 1980). 또 本芳郎(1978)은 재래공업을 근대공업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통공업, 고유공업, 특산품공업 등과 동의어로, 근대화 이전부터 일상생활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공업 혹은 가내공업형태로 이루어져 온 공업으로 개념규정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래공업이라는 용어는 생산품이나 규모에 의해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다. 즉 생산되는 제품이나 발달과정 그리고 경영특성이 상이한 다수의 산업으로 구성되는 다원적인 존재이므로 한마디로 명확한 개념정의는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전통공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재래공업의 성격을 검토함으로써 필자 나름의 재래공업의 속성을 규정하고자 한다.

재래공업은 대부분 지역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창출되었으므로 일상생활 소비재생산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본래 기술적으로는 수공업이고, 사

회경제적으로는 가내공업의 단계였다. 따라서 시장, 원료, 자본 그리고 노동 측면에서 향토성이 강하다. 그 결과 재래공업은 근대화 이전에는 분산업지의 경향성을 보인다. 그런데 근대공업의 이식에 기초한 근대화 이후, 재래공업은 분해·쇠퇴되어 왔으나 이와같은 일방적인 길만을 걸어온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의 경우 재래공업중에서 綿絲나 鐵과 같은 주로 원료부문에 있어서 이식공업에 압도되어 도태된 것도 있으나 도자기나 직물과 같이 주로 가공부문에 있어서, 자주적으로 완만하기는 하지만 성장한 것도 있다. 그 과정에서 기계화되고 공업화된 재래공업도 적지 않다(幸田淸喜, 1969).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래공업에는 체질적으로 전근대적인 요소가 명백히 잔존하고 있다. 이와같은 변천과정에서 특정지역으로의 생산집중 결과 지역특화산업으로서 특색을 갖게 되었다.

한편으로 재래공업은 자본의 영세성과 경영·설비의 비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한 채 근대공업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공업적 성격이 강하고 분업이 발달하기 쉬우며, 사회적으로 분화되는 경향이 강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재래공업은 지역적으로 집적하여 하나의 통합된 집단 즉 산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幸田淸喜, 1969). 재래공업산지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상업자본으로, 이는 제조업자와 지배·종속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관계가 상호존립의 기초가 되어 왔다(合田昭二, 1971). 왜냐하면 재래공업이 열악한 중소산업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한 원자재 조달이나 광범위한 시장에 소규모의 상품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상업자본의 개입이 불가피할 것이다(박양춘·이철우·박순호, 1995).

결론적으로 재래공업은 최종제품이나 규모에 의한 산업분류와는 범주를 달리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재래공업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특히 재래공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의 하나인 산지는 역사성, 향토성(일지), 그리고 존립형태가 이질적이고 다양하다. 따라서 재래공업은 산지의 속성, 말하자면 생산·유통체계상의 전근대성에 기초한 개념이라고 하겠다. 즉 재래공

업의 속성으로는 「봉건사회에 있어서 상업자본의 지배하에서 주로 수공업에 기초한 가내공업의 형태로 발달되었고, 그 후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면서 원료, 제품, 시장, 그리고 생산유통구조의 변화를 거듭하면서도 소규모기업이 집적하여 산지를 형성하고 기업간에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3. 우리나라 재래공업의 발달과정

우리나라 수공업의 연원은 이미 삼한시대부터 비롯하며, 신라시대에는 官需品과 武器 그리고 귀족층의 생활품의 생산을 목적으로 한 진골귀족의 지배원리를 뒷받침하는 생산체계였다(박남수, 1996). 우리나라 고대수공업은 경영주체 및 생산관계면에서 官營手工業, 私營手工業 그리고 農民手工業의 3형태로 발전하였다. 그중에서 가장 발달하였던 관영수공업은 왕실 및 국가의 수공업적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수공업조직으로 각 典·房에 부속된 官營手工業場의 생산담당자는 대체로 노비신분의 예속적 장인이었다. 물론 이들에외에 징발된 良人신분의 장인이 특수한 手工業品 생산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私營手工業은 농민이 가내수공업으로 자급할 수 없는 수공업제품의 수요를 대상으로 초기에는 半工半農 그리고 후기에는 專業手工業者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러한 私營手工業場은 대체로 지방호족들에 의하여 경영되었다는 점에서 特權手工業場이라고 할 수 있다(조기준, 1994).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관영수공업이 정부의 용도나 수요에 따라 분류되고 각 관청마다 각종 工匠을 전속시켜 그 조직이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영수공업에 종사하는 工匠들은 신라시대의 노예적 給付形態에서 벗어나 모두 전업적이고 독립적인 수공업자로서 公役日을 제외하고는 주문생산에 종사할 수 있었으며 公役に 종사하는 경우에도 勞賃的 形態로 발전하고 있었다(조기준, 1965). 기술이 우수한 工匠들은 대부분 관영수공업에 동원되어 그 기술수준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수에 있어서도 가장 많았다. 관영수공업은 중앙관청의 그것이 대표적이지만, 지방관청에서도 武器와 官需品 生産을 위하여 地方工匠이 동원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1984). 즉

농촌사회에서도 전업적 수공업자 즉 地方工匠이 존재하였다. 한편 삼국시대부터 발달하였던 所의 手工業生産도 더욱 발전하였다. 所의 주민은 신분적으로 천인에 속하였으나 노예적 노동급부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요구에 응하는 常貢 및 別貢收納의 대상이었다(조기준, 1994). 이와같이 농촌지역에도 전업적인 工匠과 所에서의 수공업생산이 이루어졌으나 역시 농촌수공업의 중심은 농민의 부업적 가내수공업이었다. 농민의 가내수공업은 대체로 자가수요 및 관부납부를 위한 布物類생산이 중심이었다. 이들 織物類의 일부는 귀족층 소비에 충당되기도 하였으나 농촌 가내수공업의 기술적 향상을 자극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중기 이후 농업생산력의 증대, 鄕市의 발달, 그리고 농민에게 부과될 別貢의 換納制度도입 등의 자극으로 시장판매를 위한 농민수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조기준, 1994). 그리고 삼국 및 신라시대에도 寺刹手工業이 존재하였으나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국교화로 寺院經濟가 향상되고 사원 및 승려 수의 증가로 수공업품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寺院手工業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寺院手工業은 대개 織布業이나 製瓦業, 製鹽業, 그리고 醱造業 등에서 발달하였으며, 초기에는 자체수요를 위하여 운영되었으나 점차 생산이 증대되어 민간수요품을 조달하기에 이르렀다(국사편찬위원회, 1984). 조선시대의 수공업은 전기와 후기에 걸쳐 생산자, 생산과정, 노동조직 그리고 수공업제품의 수요공급면에서 큰 변화양상을 보인다. 조선전기의 수공업은 고려시대의 관영수공업체도를 기반으로 한 官營手工業으로 대표된다. 조선시대의 관영수공업은 京工匠과 外工匠으로 편성되며 工匠數에 있어서는 外工匠이 많았으나 그 匠種에 있어서는 京工匠이 훨씬 많았다<sup>1)</sup>. 이것은 京工匠의 생산분야가 外工匠에 비하여 훨씬 광범위하고 노동조직의 분화가 고도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조선전기의 수공업은 어디까지나 최고지배기구인 궁중 및 중앙관서 위주의 官營手工業組織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16세기말 임진왜란 이후 대동법의 실시, 화폐의 통용과 같은 정부의 정책으로 私工匠手工業生産品의 市場등장, 상업자본가의 출현, 지방장시의 발달, 난전의 증가 등 상업면에서의 변화영향으로 官營手工業 중심의 수공업체제가 붕괴<sup>2)</sup>

되기 시작하는 대신 私營手工業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여건속에서 상인, 특히 市廛商人들은 우세한 자본력을 가지고 수공업자들을 예속시켜 제품원료를 本廛에서만 구입하게만 하고 완성된 제품을 本廛에서만 판매하게 하였다. 그 결과 수공업자들은 시전상인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경쟁관계로 조선후기의 상공업계는 한층 활기를 띌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은 私營手工業의 발달로 조선후기에는 국가의 공업적 수요를 私工匠의 임금노동에 의존하게 되었다. 「大典通編」外工匠條의 「官有使則賃用私自工營」이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공업적 수요가 私工匠의 賃金勞動에 의존하게 됨으로서 관영수공업을 뒷받침해온 工匠成籍制度가 유명무실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鄭錫伯, 1981). 「私工賃用」형태가 부역노동 형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종래의 公役과는 다르며 근대적 임금노동의 초기적 형태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하겠다. 手工業 발달은 제품의 상품화라는 점에서 工業發達史에 있어서 큰 의의를 가졌으며, 이와 동시에 勞動組織과 工業經營形態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私營手工業의 勞動組織面에서도 이미 현저한 분업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또 일부 私工匠은 상품생산과 상품판매의 득점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手工業組合을 조직하였으며(姜喜龍, 1989), 18세기 후반에는 先貸制度(putting-out system)에 입각한 工業經營形態가 광범위하게 보급되었다(최호진, 1971). 뿐만 아니라 19세기 이후에 일반민중의 수요가 컸던 도자기, 유기, 제지공업부문에 는 근대적인 생산양식의 단초적인 형태인 매뉴팩처(공장제수공업)도 발생하였다(李海珠, 198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재래공업은 역대, 특히 유교사회였던 조선시대 상공업 천시사상 등으로(유원동, 1986) 조선시대까지 소규모 가내공업의 형태로 기술이나 경영면에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항을 맞이할 때까지 그 발전의 템포는 완만했다 할지라도 자율적인 근대화의 제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었다(李哲雨, 1990). 그러나 개항 이후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일본 및 서구의 근대적 공업제품의 유입과 타율적인 식민지 종속형으로서의 공업구조개편 등으로 1915년을

가점으로 산업별 구성비에서 그 비중이 점차 저하되어 '물략형 공업'으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형기주, 1975). 개항이후 자본주의 상품의 대량유입에 의하여 자본축적의 여지는 좁아지고 在來手工業 및 상업자본은 산업자본으로 전환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일부 민족자본도 외래자본과 대항할 정도의 기술 및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형성된 민족자본의 위약성은 그후 식민지시대를 걸쳐 지속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독점자본주의적 성장정책에 기초한 산업근대화 과정을 통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재래공업은 쇠퇴, 소멸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속에서도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공장제 대량생산 대체제와의 경쟁속에서 새로운 제품개발이나 기술개선 등을 통해서 존립하고 있는 재래공업산지를 볼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재래공업제품에 대한 국내수요증가에 힘입어 성장추세를 보여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 농촌노동력 부족과 임금상승 그리고 중국 및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값싼 외국제품의 수입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박양춘·이철우·박순호, 1995; 이철우, 1997). 앞으로 재래공업은 고도경제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의 이행과정에서의 수요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욕구를 확실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비가격 경쟁면에서 수월성을 가지는 개성있는 제품의 개발을 통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야 할 것이다.

#### 4. 우리나라 재래공업 연구동향

재래공업은 그 입지가 지역적 조건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현상과 지역과의 관계를 해명하려는 경제지리학에 있어 중요한 연구과제(上野和彦, 1987)인 동시에 경제사분야에 있어서도 재래공업연구는 큰 의의를 가진다. 재래공업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재래공업은 역사적·지역적 성격이 매우 강하고 발전단계적으로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생산형태에 있어서는 농가부업, 소상품생산, 매뉴팩처, 나아가서는 공장제 기계공업까지. 또 상품의 유통에 있어서도 정기시장, 중간상인, 산지도매상, 직판, 통신판매에 이르기까지 산업전개의 역사적 형태가 同時並存的이다. 뿐

만 아니라 개별 재래공업산지내에서도 이러한 역사적 형태가 공존하면서 계층구조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래공업은 그 자체만으로 역사적 구조분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關滿博, 1985). 따라서 재래공업연구에 있어 경제사 연구성과가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현존하는 재래공업이 역사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속에서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하면서 異質多元의 속성을 가진 재래공업 연구를 통해 근대산업이나 산업지역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찾아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래공업연구의 핵심은 지역과 밀접한 관계속에서 발전해 온 재래공업의 존립기반을 밝히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래공업에 관한 연구는 전공 학문영역에 따라 연구대상이나 접근방법에 있어서 크게 경제사적 연구와 지리학적 연구로 구분된다.

경제사적 연구에서는 근대공업의 도입 이전 즉 봉건체제하에서의 재래공업 특히 수공업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주된 연구목적이다. 이 분야에 있어서도 조선시대 이전까지의 고대수공업에 관한 연구는 朴南守의 연구(1993, 1996)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수공업의 성격을 통사적으로 논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수공업에 대한 서설적 성격의 연구(홍희유, 1989; 劉教聖, 1965; 강만길, 1984a; 趙璣濬, 1994)수준에 머물러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에 조선시대 이후 특히 조선후기 수공업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홍희유, 1989; 宋贊植, 1987; 최호진, 1962, 1971; 劉元東, 1968, 1986; 姜萬吉, 1966, 1984, 劉教聖, 1965; 權丙卓, 1972; 姜喜龍, 1989; 鄭鎬伯, 1981; 金信雄, 1971, 1984; 金世光, 1993). 이들 경제사부문의 연구들은 수공업자(工匠)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역할 그리고 존재양상, 경영형태, 노동조직, 수공업자와 상인과의 관계 그리고 생산기술 등 광범위한 연구주제에 걸쳐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사회적 성격규명에 공헌하였다. 나아가서 한국 수공업발전과정에서 자본주의 萌芽를 밝힘으로서 한국자본주의 기점문제에 중요한 쟁점을 불러 일으켰다(조기준, 1977)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수공업과 상

인과의 관계 및 이에 대한 국가정책변화를 관련지워 수공업의 발전과정을 분석하려는 인식체계는 주로 제조부문에 한정시켜 온 지리학분야의 재래공업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경제사분야의 연구는 재래공업이 그 지역의 입지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경시되었다.

한편, 지리학 분야에 있어서의 재래공업에 관한 연구는 특정산지의 입지요인 분석에 초점을 맞춘 입지론적 연구와 재래공업의 생산유통체계를 분석하는 가운데 재래공업산지 존립기반을 고찰하는 연구로 대별된다(畠田昭二, 1971). 전자는 제조업체들의 최초의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그 산업의 본포를 이해하려는 입장이다(황만익, 1983). 즉 주어진 재생산요소의 경제결정론적인 최적결합(optimal combination)에 관한 지리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역사성을 전제로 한 재래공업 산지의 존립기반을 규명함에 있어서는 한계점을 지닌다. 반면에 후자는 산지내 분업화된 소규모 생산자와 산지 상업자본간의 기능적 통합(사회적 분업)을 기초로 한 생산유통체계 자체가 산지존립의 기초구조라는 시점에서의 연구이다. 이러한 시점에서의 연구는 재래공업의 역사적 본질을 감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보다는 재래공업의 존립기반을 밝힘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박양춘·이철우·박순호, 1995). 그러나 타산지의 동향이나 국민경제의 동향과의 관련성이 경시될 가능성이 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風卷義考, 1958).

우리나라 지리학계에서 재래공업의 연구는 1970년대 중반까지 노도양의 「十五世紀 朝鮮의 産業에 대한 地理的 考察」(1969)에서 부분적으로 衣料産業, 陶磁器 등의 産地의 分布特性을 밝힌 정도로 「재래공업의 지역적 존립형태 혹은 재래공업지역의 반응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로 이것도 한국공업지리학의 나약한 일면을 입증한 것이 된다」는 한마디의 지적(형기주, 1975)으로 대변된다. 재래공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리학적 연구는 1976년 합천 도자기 공업을 사례로 한 입지인자 및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입지론적 연구에서 출발하였으나(박찬석, 1976), 특정 재래공업

산지의 입지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장미경(1982)과 김계희(1983)의 연구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다. 박찬석은 합천도자기공업을 사례로 생산인자와 수요인자를 분석하여 합천도자기공업의 입지조건으로 고령토, 연료, 동력(물레방아), 노동력과 공간認識(space perception)을 지적하였고, 현재까지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투자된 자본의 관성에 의한 立地慣性(location inertia)을 들고 있다. 반면에 재래공업지역의 변천과정과 지역구조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조승현 연구(1979)를 필두로 1980년대 재래공업연구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특정 재래공업산지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연구(조승현, 1982a, 1982b, 1984, 1985, 1992; 정춘기, 1990; 황의호, 1989; 한상익, 1981; 공성희, 1989; 한홍렬, 1984, 1985, 1986)들은 특정산지의 형성과정과 입지조건 그리고 존립형태를 중심으로 한 재래공업 산지의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산업지리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산지 형성과정과 존립형태를 밝힘에 있어서 재래공업산지를 구성하는 부문별 업체의 경영특성과 생산유통체계변화의 지역내외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 경시되었다. 물론 개별산지의 특성에 대한 연구도 재래공업은 역사적·지역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내면의 구조적 특성에 있어서도 개별성이 매우 강하다(關滿博, 1985, p.6)는 점과 재래공업의 통계 및 문헌자료가 불비된 현실적인 제약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재래공업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중요하다. 즉 「재래공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퇴해져가는 현실에서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이에 대한 연구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명의식과 「이에 대한 연구들은 후학을 위한 기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재래공업에 관한 연구는 종합적인 입장에서 진행시켜야 한다」(조승현, 1992, pp.160-161)는 시점에서의 개별산지중심의 연구축적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래공업 연구의 의의가 과연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분석틀로 접근되어야 하는가 하는 철저한 비판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연구축적이 이루어져 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조사연구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재래공업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재래공업에 대한 知識體系, 認識體系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한편 재래공업연구는 「외 최초로 그곳에 입지되었는가를 이해하기 보다는 어떻게 오랜기간동안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는가」하는 재래공업산지의 존립기반을 밝히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산지내 사회적 분업을 통해 기능적으로 통합된 생산유통구조 자체가 재래공업산지 존립의 기초구조(滿成忠男, 1974)라는 분석시각에서의 일련의 연구(박양춘·이철우·박순호, 1995; 박양춘·이철우, 1992; 李哲雨, 1990, 1991a, 1997; 김시연, 1995; 오숙희, 1997)도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생산유통구조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기초로 한 산지내 사회적 분업과 지역분화의 특성을 분석하고 나아가서 산지존립에 있어서의 사회적 분업의 의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들은 특정산지 즉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면서도 산업으로서의 재래공업 특성파악에만 집착한, 말하자면 「산업론」적 연구로 일관되어 왔다. 그 결과 재래공업은 「그 지역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초점을 맞춘 「지역론」적 연구(上野和彦, 1980)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래공업종사자가 바로 지역사회 구성원이므로 재래공업종사자를 지역사회의 사회구조상의 자리매김을 통해 재래공업의 의미를 파악하는 「産業地域社會 : industrial community」<sup>3)</sup> 측면에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는 생산·유통의 교차·결합관계 뿐만 아니라 경영자·종업원과 그 가족의 타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 전체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松井久美枝, 1986).

특정산지 사례연구의예 형기주(1982)는 “1780~1880년간에 걸친 전통수공업의 입지변화를 다루면서 완초제품, 죽제품, 한지업, 제사와 직조, 박물세공, 도자기, 철공, 염전 등 수공업의 입지특성과 입지유형 및 입지조건을 규명하였다”(김상수, 1991, p.13). 그리고 한홍렬(1989)과 이청일(1991)의 연구는 우리나라 器工業과 식물성 섬유제품 등을 대상으로 역사적·지역적 전개과정, 제조공정과 기술, 그리고 유통과정을 밝혔다. 이들 연구는 현존하는 특정산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문헌과 역사·경제사부문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복원한 역사·지리학적 측면에서의 연구로, 현존하는 산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다룰 수 없는 점을 보완

함으로써 우리나라 재래공업연구에서의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변화의 특성과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하겠다. 金相洙(1991)는 개화기 한국 공업입지연구에서 관영수공업(造紙署, 瓦署)와 민영수공업(織物業, 陶磁器産業)을 대상으로 입지특성, 입지변화, 입지요인을 분석하여 재래공업의 입지요인으로는 원료 및 교통, 기술의 축적을 들고 있다. 그의 李鶴源(1987)은 조선시대 강원도의 가내수공업 종류와 그 분포를 통하여 당시의 공업공간의 지리적 특색을 밝혔다.

그외에도 단편적으로나마 재래공업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강병주, 1983; 이은주, 1991)와 재래공업개발에 관한 연구(강병주, 1981; 이동필, 198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9) 등도 발표되어 1980년대 이후 한국재래공업에 대한 연구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지리학분야에 있어서의 재래공업연구는 1980년대 이후 우선 수적인 면에서 상당한 연구축적이 이루어졌으며 연구범위도 입지론적 분석에서 출발하여, 특정 재래공업이나 특정산지의 발달과정과 존립형태분석, 생산유통구조변화를 중심으로 한 산지존립분석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재래공업연구의 의의는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분석들 속에서 연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재래공업의 연구가 공업지리학의 한 분야로서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의의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래공업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라는 독자적인 지식체계, 인식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축적된 경험적 사례연구를 기초로 한 이론적 연구의 활성화가 절실휴나.

## 5. 재래공업산지의 존립기반

조선시대까지의 봉건사회에서는 지방적 원료와 수요에 기초하여 전통적·인습적인 수공업기술에 의존하여 온 우리나라 재래공업은 식민지통치와 근대화과정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쇠퇴·소멸하



여 왔다. 그러나 특정 재래공업이 존속·성장하고 있는 것은 그 생산유통구조가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宮町良廣, 1989).

재래공업은 소비재생산이 중심이기 때문에 주된 시장을 구성하는 것은 개인소비이고 나아가서 수요가 넓은 지역에 걸쳐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다. 특히 오늘날 재래공업의 대부분은 원자재를 산지외부에서 조달함으로써 산지내 원자재의 독점에 의한 이익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上野和彦·西村龍平, 1990). 따라서 영세소규모 생산자가 원료구입, 생산과 제품판매를 동시에 수행함에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세업자들은 집적하여 협동적인 연계망 즉 사회적 분업체계를 형성하여 산지를 이루게 된다. 이와같은 특정지역으로의 생산집중이라는 산지형성의 경향성에 주목하여야 한다. 최초의 입지사정도 고찰되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특히 개별적이고 병렬적인 입지요인분석만으로 오늘날 그 산지의 존립기반을 설명할 수 없다. 즉 재래공업산지의 형성에는 비록 그 성립 단서가 무엇이든간에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의 발전과정이 문제가 된다(幸田清喜, 1969). 그 산지가 존속되어 온 과정에서 어떠한 조건이 지역특유의 조건이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 하는 역동적 과정속에서만 입지조건도 정확하게 규명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지 전체를 하나의 발전하는 구조로 보고 재래공업산지의 존립기반이 설명되어야 한다.

재래공업 산지는 일반적으로 제조업과 그 관련된 소규모업체가 상업자본 등 산지내 선도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분업체계하에서 서로 대립하면서도 기능적으로 통합된 양상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지는 단일 생산유통체계에 의해 통합되어 있다기 보다는 다수의 유형이 혼재되어 있고, 지역적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독자적인 경영자원의 축적을 기반으로 발달한 결과 산지의 발전과 존립형태가 매우 다양하다(李哲雨, 1991a). 따라서 재래공업 연구의 의의는 역사적, 지역적인 존제형태의 이질성 그 자체에 있으며(松井辰之助, 1954), 그 존제형태의 특성이나 그 역사적 발전양상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재래공업 연구의 주된 과제가 되어 왔다. 따라서 현존하는 재래공업에 대한 중심적 연구과제는 어떻게 특정지역에서 오랜

기간동안 생산활동이 지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 즉 산지존립의 社會機構의 파악에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재래공업산지의 존립기반은 역사적 전통성을 강하게 반영하므로 산지의 발달과정과 재래공업의 존재형태를 규정하는 생산유통구조의 변화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와 관련시켜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하에 본 장에서는 재래공업연구의 핵심적 주제중의 하나는 산지존립기반 규명이라는 한가지 논의점을 제시한다는 의도에서 우리나라 재래공업의 생산유통구조변화와 산지내 사회적 분업과 지역분화를 고찰하기로 한다.

### 1) 우리나라 재래공업산지의 생산유통구조 변화

재래공업의 제품은 사람들의 기호 및 경제의 경기변동에 민감한 소비제적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수요가 넓은 지역에 소규모로 분산하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성장과정에서 시대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 몇번이나 사업전환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재래공업산지의 생산유통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우리나라 재래공업산지는 농촌형 재래공업이 주축이 되고 있다. 농촌형 재래공업은 일반적으로 원료생산에서 최초 제품생산까지 전공정이 단일 경영체내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괄생산체제가 중심을 이룬다. 우리나라의 재래공업은 신흥산지<sup>4)</sup>를 제외하고는 1960년대 이후 근대화에 따른 쇠퇴기를 겪기 이전까지는 가족노동을 중심으로 각자의 생산설비를 사용하는 가내수공업형태로 생산된 제품을 중간상인이나 정기시장을 통하여 판매하는 「소상공형」의 일괄생산체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970년대의 근대화와 공업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와 대체체의 공장제대량생산에 따른 수요변화로 생산유통체계가 변화하였다(박양춘·이철우·박순호, 1995). 특히 석유화학공업의 발달로 우리나라 농촌재래공업의 주류를 이루는 竹·木製品, 천연섬유(莞草 포함), 도자기제품이 합성수지와 스티렌소재제품이나 화학섬유제품으로 대체됨으로서 재래공업제품의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였다(李哲雨, 1990). 뿐만 아니라 도시화·공업화에 의한 농촌 잉여노동력의 감소와

임금의 상승으로 농가부업증심의 생산자 계층분해와 동시에 생산자의 감소로 산지는 쇠퇴하는 한편 국내 수요감소의 타개책의 일환으로 수출을 지향하기도 한다. 그 결과 새로운 제품개발에 따른 제품의 다양화가 진전되었다. 예를 들면 담양죽제품의 경우 1970년대에 산지내에 수출상이 등장하여 죽제품예품과 꽃바구니 및 빵바구니 그리고 부채(團扇)의 반제품, 발(簾) 등의 신상품개발과 새로운 판로개척이 활발히 이루어져 제품의 종류와 판로의 다양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에 대응가능한 기술축적을 가진 생산자를 중심으로 전업생산자가 증가함에 따라 생산유통구조가 빈화하였다(李哲雨, 1991a). 그리고 여주도자기 산지의 경우도 일본과 구미지역으로의 수출용 청자나 백자 등의 전통도자기의 제현을 통해 우리나라 3대도자기의 하나가 되었다(한홍렬, 1989).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천연섬유와 도자기를 비롯한 quality상품에 대한 국내수요의 회복과 제품의 고급화·다양화를 지향하는 소비자의 수요빈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농가부업과 소수의 전업자에 의한 「소상품형」에서 품질 및 생산공정 개선노력과 노동력의 노동화 및 감소의 대응책의 일환으로 일부 생산설비와 기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공장형」과 「생산공정상의 사회적 분업형」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제품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향상되었다. 이러한 생산구조의 변화로 유통체계도 변화하였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촌 재래공업의 경우 1960년대까지는 정기시장을 매개로 한 외지중간상인을 통한 유통체계가 중심이었다. 정기시장은 현재도 농가부업증심의 「소상품형」으로 생산되고 있는 일상생활용품의 거래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나 1970년대 이후 그 기능은 증전보다 훨씬 약화된 반면 제품의 변화와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판로개척의 필요성에 의해 산지도매상 및 수출상이 등장함으로써 산지내 생산과 유통간의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산지도매상은 현재의 유통체계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지도매상의 주된 기능은 도매이지만 내방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소매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제품의 전시·판매를 통해 수요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

품을 직접생산 혹은 주문생산을 통하여 신상품개발이나 품질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강화 화문석산지의 경우에는 원자재 판매기능도 겸하고 있다(李哲雨, 1990). 그외 농업협동조합의 직영 판매점이 개편되어서 조합원의 제품을 산지에 방문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소매경로도 형성되었다. 그리고 「생산공정상의 사회적 분업형」의 경우에는 대량생산을 지향한 결과 종래의 정기시장과 산지도매상을 경유하지 않고 소비지도매상과 직접 거래를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재래공업산지로서의 지명도와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등 제품판매체계가 다변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침체기의 생산자 계층분해와 1980년대 이후 수요증가와 제품의 고급화·다양화의 영향으로 제1차산업적 성격이 강한 원료생산과 제조부문이 분리되는 한편 산지의 부로부터의 원자제조달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산지내 원자재 공급업체가 등장함으로써 원료조달과 제조부문의 사회적 분업도 이루어지게 되었다(그림 1).

## 2) 산지내 사회적 분업체계와 산지내 지역분화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재래공업산지의 생산유통구조의 변화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는 생산유통체계의 다변화와 산지내 사회적 분업화 경향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생산과 유통 또는 생산공정간의 산지내 사회적 분업의 연구는 최근 재래공업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연구과제인 동시에 주목할만한 연구성과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靑野壽彦, 1980). 뿐만 아니라 수공업사 연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분업의 정도와 정치사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다(박남수, 1996)는 면에서도 재래공업산지내 사회적 분업의 연구는 큰 의의를 가진다.

산지내 사회적 분업은 생산유통 체계상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업체간의 협력·대립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분업에 대한 이해는 사회적 분업체계를 구성하는 업체의 경영특성과 결합관계를 통해서만 이해가 가능하므로 각 구성업체들의 경영특성 및 업체간 결합관계를 통해서 이해된다(박양춘·이철우·박순호, 1995).

우리나라 재래공업의 산지내 사회적 분업체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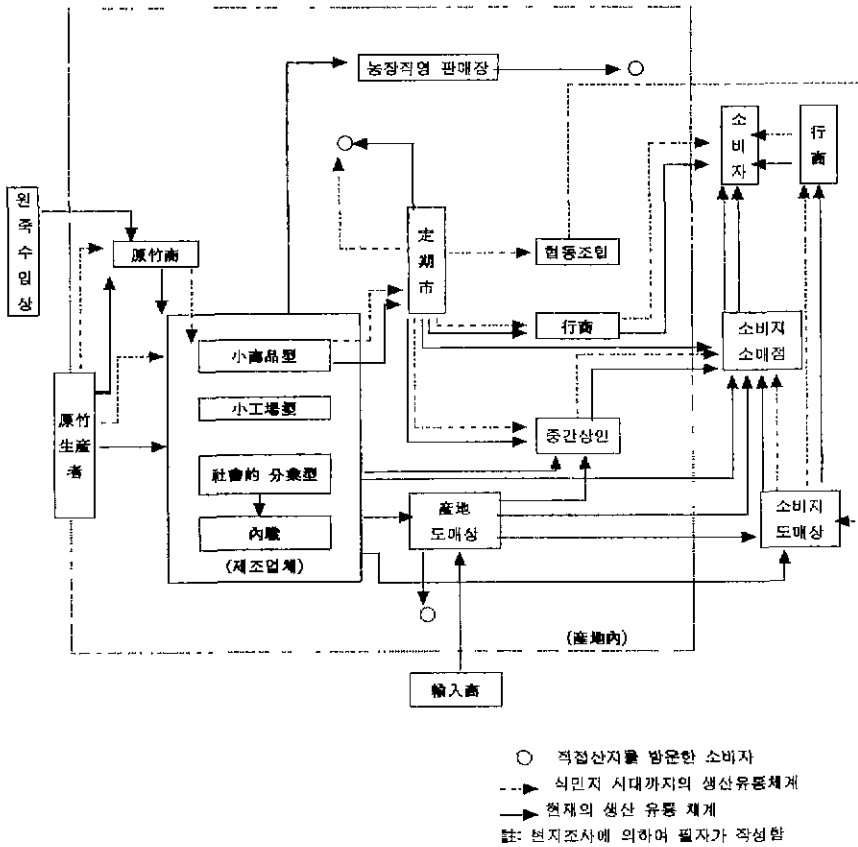


그림 1. 담양 죽제품 산지의 생산유통 체계 분석  
 자료: 박양춘·이철우·박순호(1995) 재인용

구성하는 산지기업군은 대체로 원료생산/조달업체, 제조업체 및 입가공업자, 제품판매 관련업체 그리고 설비 및 기계제작등의 관련업체로 대별되며, 사회적 분업은 크게 원료생산/조달-제조-제품판매 간의 생산과 유통간, 특정 제품생산에 있어서의 생산공정상의 분업 그리고 제조부문과 관련설비·기계제작부문에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재래공업제품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증가되었으나 우리나라 재래공업생산은 수공업적 숙련기술의 필요성과 생산기계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관계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뚜렷한 생산비 절감효과를 추구함에 있어서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격화되었다. 즉 영세생산자들이 집적하여 협동적인 연계관계를 맺은 산지형성을 통해 외부 경제를 추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존립기반을 구축

하고 있다. 이와같은 산지내 사회적 분업체계하에서 일반적으로 개별기업은 각자 고유한 기능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많은 개별기업을 조직화하는 통괄자(organizer)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통괄자는 최종상품 생산자인 경우도 있고, 유통담당자인 경우도 있다. 또 조직관계에 있어서는 유통업자(상업자본)가 생산자를 지배하는 경우와 유통업자와 생산자가 대등한 분업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다(杉岡 碩夫, 1973). 우리나라 재래공업 산지내 사회적 분업의 특성은 아직은 초기단계로 특정계층의 기업을 정점으로 한 수직적 구조하에서 타기업들이 先貸制度 등을 통한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생산이 이루어지는 지배-종속관계가 아닌 개별기업이 상호간에 독자성을 가진 수평적 분업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제품의 기획·개발 및 판로개척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 즉 사회적 분업체계의 통괄자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업이 발달하지 못한 점은 최대의 약점이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따라서 앞으로 산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재의 수평적 분업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산지내 사회적 분업의 심화를 통한 외부경제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생산유통체계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재래공업산지 존립에 있어서의 사회적 분업의 의의로는 첫째, 분업에 따른 다양한 업종분화와 생산공정의 세분화로 가족 노동력, 가계보조적인 노년층 노동력과 주부노동력 등 다양한 저임금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노동력 부족을 극복함과 동시에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둘째, 소자본의 신규창업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셋째, 전통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생산과 마케팅 등 다방면에 걸친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업종과 제품의 전환을 통해서 제품의 다양화와 제품수명주기를 연장함으로써 산지의 성장·존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李哲雨, 1990; 박양춘·이철우·박순호, 199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재래공업산지는 단일생산유통체계에 의해 통합되어 있다기보다는 다수의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다수의 생산유통체계는 개별경제체 내부보다는 산지의 변화과정에서의 신규참여업체와 기존업체, 핵심지역과 주변지역간에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이 재래공업산지는 다시 몇 개의 지역으로 생산을 분화하여 분화된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역적 통일체를 구성하고 있다. 산지내 지역분화는 일반적으로 최초로 정착된 기술적 핵심지에서 점차 주변으로 전파·보급되어 가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이와같이 분화된 각 지구는 산지전체의 공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주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생산을 전개한다. 산지내 지구별 분화특징은 상업자본을 중핵으로 그 주변에 전업생산자 그리고 겸업농가로 배치되어 권역의 구조를 나타낸다. 이 생산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특히 사회적 분업 정도에 따라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각 지구별 특성은 노동력·생산수단·생산품의 성격 그리고 분업과 협업관계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

(辻本芳郎, 1978).

우리나라 재래공업산지내 지역분화에 관한 연구로는 조승현(1979)에 의하여 최초로 연구되었다. 그는 담양 죽세품 산지내 74개 마을을 대상으로 1935년과 1978년 마을별 종사율과 主要製品別 特化地域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일제 식민지시대에는 죽물시장이 입지하는 담양읍과 그 인접지역의 종사율이 높았으나 1978년에는 담양읍의 외곽지역의 종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그 이유로는 운송수단의 발달에 따른 죽물시장까지의 운반이 편리해졌음을 들고 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공장제 대체제의 대량생산과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主要製品別 特化地域도 크게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제품에 있어서는 생산공정상의 지역분화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1970년대까지는 제조기술상의 차별성보다는 원료구득상의 편이성 등에 의한 제품별 지역분화가 두드러진 반면, 1980년대 이후에는 제품의 고급화·다양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전업자를 중심으로 한 죽공예품·공장제 생산중심의 핵심지역과 농가부업에 의한 일상생활용품 생산중심의 외곽지역간의 지역분화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지역분화는 제품의 수요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즉 기술축적정도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이철우, 1991a). 李哲雨(1990)는 강화 완초공예품산지를 사례로, 완초공예품생산의 정착시기, 보급율, 그리고 생산기술 전파방법을 기준으로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 생산과 유통구조상의 차별성은 기본적으로 기술축적의 정도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혔다. 즉 기술축적의 지역차가 제품의 종류와 제품질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가져왔고, 제품의 종류와 질에 따라 유통체계가 달라진 결과 지역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안동삼베수공업산지의 지역분화는 과거 안동 전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던 안동포 생산이 쇠퇴기를 거치면서 특정 지역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지역간의 생산유통구조상의 차별성에 기초하여 지역간 연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지역분화의 원인으로는 안동포 생산이 전체적으로 농업적 성격과 수공업적 성격이 강한 공정으로 대별되고 중국산물을 비롯한 타 삼베지역과의 비가격경쟁을 통한 제품차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농업적 성격이 강한 대마재배는 자연조건이 양호한 지역으로의 특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주된 생산품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기술축적과 깊은 상관성을 가지나 유통체계 및 노동력 이용방식에 있어서의 차별성과도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이철우, 1997). 즉 재래공업 산지내 지역분화의 요인으로는 선밭지역에서 주변으로의 확산·발전과 쇠퇴과정에서 생산기술의 차이와 관련된 생산구조와 그에 따른 유통체계상의 차별화를 들 수 있다.

이상에서 제한적인 사례연구를 기초로 우리나라 재래공업 존립기반으로서의 생산유통구조 변화특성을 살펴보았으나, 재래공업 자체가 극히 다양하고 이질적이며 다원적인 존재인 만큼 존립기반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례연구의 축적이 요구된다.

## 6. 맺음말

한국지리학계에서 공업지리학의 연구는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고, 특히 1980년대 접어들어서 세계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된 공업지리학 연구의 핵심과제나 주제들이 한국 공업지리학계에도 집중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함으로써 연구논문의 수적인 면에서 엄청난 증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공업지리학의 연구는 대부분 근대공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근대공업의 도입이전부터 발달되어온 재래공업의 연구는 경제사분야에 있어서는 해방이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지리학분야에 있어서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재래공업의 지역적 존립형태 혹은 재래공업지역의 변용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였다. 1970년 중반이후 특정 재래공업이나 특정 산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주제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래공업에 관한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 재래공업연구의 동향 및 연구과제를 밝히고 나아가서 지리학분야에 있어서의 재래공업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래공업의 성격으로는 봉건사회에 있어서 상업 자본의 지배하에서 주로 수공업에 기초한 가내공업의 형태로 발달되었고, 그 후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면서 원료, 제품, 시장, 그리고 생산유통구조의 변화를 거듭하면서도 소규모기업이 집적하여 산지를 형성하고 기업간에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리학분야에 있어서의 재래공업연구는 1980년대 이후 우선 수적인 면에서 상당한 연구축적이 이루어졌으며 연구범위도 입지론적 분석에서 출발하여, 특정 재래공업 특정산지의 발달과정과 존립형태분석, 생산유통구조변화를 중심으로 한 산지존립기반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등으로 확대되었다. 첫째, 입지론적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당초에 자본제 기업으로서 발생·입지한 것이 아닌 재래공업을 자본제 생산양식을 전제로 한 입지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점이 있다. 둘째, 1980년대 우리나라 재래공업의 주류를 이루어 온 특정업종이나 산지의 발달과정과 존립형태를 중심으로 한 산지의 지역특성을 고찰하는 소위 「종합적인 입장」에서의 연구는 발달과정과 존립형태를 재래공업/산지를 둘러싼 지역내외적 원인이나 부문별 경영특성과 관련지워 분석되지 않았으며 재래공업연구의 핵심적 주제는 무엇이며, 그 주제는 어떠한 방법론에 의해서 분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셋째, 재래공업이 「왜 최초로 그곳에 입지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보다는 어떻게 오랜 기간동안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는가」하는 재래공업/산지의 존립기반 규명이 재래공업연구의 핵심적 주제라는 전제하에 산지내 사회적 분업을 통해 기능적으로 통합된 생산유통체계 자체가 산지존립 기초구조라는 분석시각에서의 연구는 우리나라 재래공업연구에 새로운 분석시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산지를 상대적으로 역내 완결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문제점이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특정산지 즉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면서도 「산업론」적 연구로 일관되어 「지역론」적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재래공업종사자가

바로 지역사회 구성원이므로 재래공업종사자를 지역사회의 사회구조상의 자리매김을 통해 재래공업의 의미를 파악하는 「産業地域社會: industrial community」 측면에서 연구가 장래 핵심적 연구과제의 하나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재래공업의 존립기반으로서의 생산유통구조의 변화특성을 살펴보면, 1960년대까지 「소상품」형의 일괄생산체제가 중심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대체제의 공장제대량생산에 따른 수요변화와 1980년대 국내수요의 회복과 제품의 고급화·다양화를 지향하는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공장형」과 「생산공정상의 사회적 분업형」으로의 전환 등으로 생산체제가 다변화되었다. 그 결과 정가시장을 매개로 한 외지중산상인을 통한 유통체계 중심에서, 1970년대 이후 산지도·소매상 및 수출상 등이 등장함으로써 다변화되는 동시에 산지내 생산과 유통간의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중에서 산지도매상은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유통구조의 변화과정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는 산지내 사회적 분업체계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재래공업의 산지내 사회적 분업은 크게 원료생산/조달-제조-제품판매간의 생산과 유통간, 특정제품생산에 있어서의 생산공정상의 분업 그리고 제조부문과 관련설비·기계제작부문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산지내 사회적 분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 절감효과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이후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 재래공업 산지내 사회적 분업의 특성은 아직은 초기단계로 특정계층의 기업을 정점으로 한 지배-종속관계가 아닌 개별기업이 상호간에 독자성을 가진 수평적 분업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그러나 사회적 분업체계의 통괄자의 기능을 담당하는 선도적 기업이 발달하지 못한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리고 지역분화의 특성으로는 1970년대까지는 기술축적의 차별성보다는 원료구독상의 편이성 등에 의한 제품별 지역분화가 두드러진 반면, 1980년대 이후에는 제품의 고급화·다양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수요변화에 대한 적응능력, 즉 기술축적정도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다.

이상 우리나라 지리학 분야에 있어서의 재래공

업에 대한 연구동향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재래공업의 명확한 성격규명에 기초하여 경제지리학 특히 공업지리학에 있어서의 재래공업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이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축적이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종래의 경험적 연구축적을 기반으로 핵심적 연구주제의 모색, 다양한 분석시각과 연구방법론 정립을 위한 심도있는 이론적 연구가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다. 즉 이론적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은 사례연구의 축적만으로는 학문적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나아가서는 재래공업이 그 지역경제나 삶의 질의 향상에 있어서의 역할을 감안할 때, 현재 재래공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발·육성정책에 대한 연구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래공업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기본적으로 개별경영단위의 총합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재래공업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지역적 유기체 즉 산지로 존립하며, 하나의 산지는 경영상의 특성이 상이한 업종, 그것을 구성하는 다수의 경영체의 집합체에 의해 성립되므로 문제점과 개발·육성정책도 개별경영단위가 아닌 하나의 산지를 단위로 분석·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註

- 1) 經國大典에 규정된 정공장과 외공장의 匠種 및 인원을 보면 정공장의 경우 공조를 비롯한 30개의 중앙관서에 129개의 장종과 2,841인이었고 외공장의 경우를 보면 27개의 장종에 3,656인의 工匠이 소속되어 있었다.
- 2) 관영수공업의 붕괴원인으로는 첫째로 국가재정의 결핍으로 인한 官匠의 대우불충분으로 그들의 생활이 궁핍화하여 관료적 조직에서 도피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로 귀족 관료들의 횡포 즉, 官匠을 자의로 사역시키며 노역에 대한 심한 착취로 匠人들의 의욕을 상실시킴과 아울러 기술의 습득을 시키지 못하게 됨으로 특수 기술의 凝絶로 기술적 계승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셋째로 匠人들의 지나친 감독과 제품검열에 따른 官匠들의 廢其所業의 태만이다. 넷째로 18세기에 이르는 동안 특히 大同法 실시로 인하여 종래의 現物貢納이던 국가재정이 화폐경제적인 재정적

변화를 겪게 되어 화폐로 중앙관서의 필요한 물품을 시장구입하였기 때문에 관청에서 그다지 필요하지않은 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이상 工匠施設과 匠人을 役使할 비경제적이며 비생산적인 시책의 변경 등을 들 수 있다(姜喜龍, 1989; 劉元東, 1968).

3) 산업지역사회(industrial community)란 산업을 유대로 생활이 영위되는 産住一體의 지역사회로 정의된다(松井久美枝, 1986, p.11).

4)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조승현(1985)에 의한 전남 해남군의 옥돌공예산업을 신홍산지로 볼 수 있다.

5) 재래공업의 개별산지별 사회적 분업체계를 구성하는 산지기업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주도 자기산지는 ① 도자기 제조의 원료인 각종 陶石을 구입, 素地와 釉藥을 생산하는 소지 생산업체 ② 形成과 燒成중심의 도자기 제조업체 ③ 전시판매업체 그리고 ④ 소지 및 도자기 생산에 필요한 설비 및 기계 제작업체로, 안동삼베수공업산지는 ① 외지에서 대마종자인 삼씨의 계약재매를 통해 조달·공급하는 종묘상(농협) ② 대마재배업자 ③ 제사 및 직조 중심의 안동포 생산업자 ④ 색내기, 봉제 등 단일공정만을 담당하는 임가공업자 그리고 ⑤ 산지 도·소매상을 중심으로 한 제품판매 관련업체로, 담양죽제품산지는 ① 죽제품 제조업체(자) ② 산지도매상을 비롯한 제품판매 관련업체 ③ 원료(대나무)를 조달·공급하는 원죽상으로, 그리고 강화완초공예품산지는 ① 산지도매상을 비롯한 제품판매 관련업체 ② 완초제품 생산업자 ③ 안료상, 도안자 등을 포함한 관련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박양춘·이철우·박순호, 1995; 李哲雨, 1990; 이철우, 1997).

## 文 獻

姜萬吉, 1966, "조선후기 수공업자와 상인과의 관계", 아세아연구, 4(3), 29-45.

姜萬吉, 1972,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출판부, 서울.

姜萬吉, 1984a, "수공업", 한국사5, 국사편찬위원회, 184-195.

姜萬吉, 1984b, 조선시대 상공업사 연구, 한길사, 서울.

강병주, 1981, 지역개발전략으로서의 지역산업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병주, 1983, "지역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농촌경제 6, 71-83.

姜喜龍, 1989, 朝鮮後期手工業에 관한 -研究,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공성희, 1989, 利川郡 陶磁器 工業地域에 關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國史編纂委員會, 1984, 韓國史5,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86, 韓國史論, 民族文化社, 서울.

權丙卓, 1972, 韓國經濟史特殊研究, 嶽大 産業經濟研究所, 대구.

金相守, 1991, 開化期 韓國工業立地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세광, 1993, 14-16世紀의 傳統陶藝 手工業에 關한 一考察,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시연, 1995, 충무나전칠기산업의 생산·유통구조,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金信雄, 1971, 李朝末의 手工業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金信雄, 1984, 朝鮮時代의 手工業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의창, 1980, 慶北 安東 大麻 織布에 關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제희, 1983, 한지공업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전주한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盧道陽, 1969, 十五世紀 朝鮮의 産業에 對한 地理的 考察, 동아출판사, 서울.

朴南守, 1993, 新羅手工業史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朴南守, 1996, 新羅手工業史, 新書苑, 서울.

박삼옥, 1983, "한국지리학에서 공업입지연구의 동향과 쟁점", 지리학논총, 10, 54-70

박삼옥, 1996, "한국경제지리학반세기:연구성과와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31(2), 160-190

박양춘·이철우, 1992, "高度經濟成長期 이후의 在來工業 生産流通 構造의 變化", 정관 이병근교수 화갑논문집, 187-208.

박양춘·이철우·박순호, 1995, "우리나라 재래공업산지의 사회적 분업", 대한지리학회지, 30(3), 269-295.

박찬석, 1976, "傳統工業이 地域開發에 미치는 影響",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집, 6·7, 43-70.

- 宋鍾克, 1969, 新經濟地理學, 박영사, 서울.
- 宋贊植, 1987, 李朝後期手工業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 오숙희, 1997, "이천도자기산업속에 있는 지역사회네트워크", 지방자치, 97년 5월호, 현대사회연구소, 73-78.
- 劉敎聖, 1965, "韓國商工業史", 韓國文化史大係II, 967-1156.
- 劉元東, 1968, 李朝後期商工業史 研究, 한국연구원, 서울.
- 劉元東, 1986, "商業의 概觀", 한국사론11, 국사편찬위원회, 1-36.
- 이동필, 1984, "전통공예산업에 관한 사례연구", 농촌경제, 7(3), 91-101.
- 이은주, 1991, 地緣産業의 實態와 經濟的 波及效果에 關한 研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철우, 1997, "안동 삼베 수공업산지의 생산유통체계와 지역분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3(1), 135-154.
- 李清一, 1985, "韓國 傳統 手工業의 歷史的 背景", 동국지리, 6, 41-56.
- 李清一, 1991, 韓國 傳統手工業의 地理學的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鶴源, 1987, "朝鮮時代 江原道の 家內手工業 種類와 分布에 關한 研究", 지리학논총, 14, 47-57.
- 李海珠, 1982, 韓日比較工業化史論攷,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미경, 1982, 창녕산지공업의 입지,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성미, 1995, 朝鮮初 手工業政策과 實態에 關한 考察,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춘기, 1990, 삼베 手工業의 存立形態 및 地域構造의 變遷過程-全南 和順郡 北面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鄭鎬伯, 1981, 朝鮮後期 手工業發展에 關한 一研究,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趙璣濬, 1965, 韓國經濟史, 日新社, 서울.
- 趙璣濬, 1977, 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 大旺社, 서울.
- 趙璣濬, 1994, 韓國經濟史新講, 日新社, 서울.
- 曹勝鉉, 1979, 潭陽 竹細工業의 發遷과 變遷過程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曹勝鉉, 1982a, "咸平莞草工業의 存立形態와 地域構造", 교육연구, 8, 전남대 학교교육문제연구소, 147-171.
- 曹勝鉉, 1982b, "寶城 莞草生産의 構造와 存立形態", 사회과학논총, 10, 전남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71-188.
- 曹勝鉉, 1984, "光山郡 本良面 莞草工業의 存立形態와 地域構造", 전남대학교 논문집, 29, 55-76.
- 曹勝鉉, 1985, "新興家內工業의 地域構成과 存立形態-全南 海南郡 黃山面 옥연의 옥돌공업을 중심으로", 龍鳳論叢, 15, 전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20.
- 曹勝鉉, 1992, "전남 삼베수공업의 존립형태와 지역구조의 변천 : 전남 보성군을 중심으로", 호남 문화연구, 21, 157-185.
- 崔虎鎮, 1962, 한국경제사개론, 보문각, 서울.
- 崔虎鎮, 1971, 한국경제의 제문제(5), 精研社,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9, 地緣産業의 育成方案에 對한 研究-郡地域을 中心으로-.
- 한상익, 1981, 한산저포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홍렬, 1984, "江華莞草手工業과 立地變動에 關한 研究", 청주사대논문집, 13, 235-266.
- 한홍렬, 1985, "韓國의 鎗器工業과 立地에 關한 研究 - 安城鎗器工業을 중심으로-", 청주사대 논문집, 16, 201-234.
- 한홍렬, 1986, "韓國木器工業에 關한 小考-南原木器를 중심으로-", 청주사대논문집, 18, 231-266.
- 한홍렬, 1987, "韓國在來工業의 地理的 展開過程(I)", 지리학연구, 12, 313-348.
- 한홍렬, 1989, 韓國 傳統手工業의 地域的 展開過程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형기주, 1975, "경제지리학", 창립30주년기념 심포지움-지리학 30년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 91-124.
- 형기주, 1975, "한국 공업입지의 전개과정(I)-방법론·식민지적 공업화-", 지리학, 12, 27-51.
- 홍희유, 1989, 조선중세수공업사연구, 지양사, 서울.
- 황만익, 1983, "製造業에서 企業構造가 分布에 미치는 影響", 지리학, 28, 35-45.
- 황의호, 1989, 보령 석공업의 지리학적 연구, 공주



- 사범대학 석사학위논문.
- 關滿博, 1985. 傳統的地場産業の研究, 中央大學出版部, 東京.
- 官町良廣, 1989. “南アジア農村手織業の生産流通構造”. 經濟地理學年報, 35(1), 1-22.
- 磯部喜一, 1985. 傳統産業論, 有斐閣, 東京.
- 杉岡碩夫, 1973. 中小企業と地域主義, 日本評論事, 東京.
- 上野和彦, 1980. “伊勢崎機業と地域”. 地域, 5, 19-24.
- 上野和彦, 1987. 地場産業の展望, 大明堂, 東京.
- 上野和彦・西村龍平, 1990. “地場産業地域形成に関する一考察”. 經濟地理學年報, 29(1), 47-57.
- 松田孝, 1959. “「在來工業」の立地について”. 駿台史學, 9, 72-83.
- 松井久美枝, 1984. “製品轉換と産地の形成過程”, 人文地理, 36(6), 1-20.
- 松井久美枝, 1986. “産地の構造と産業地域社會”, 奈良女子大學地理學研究報告, 2, 114-135.
- 松井辰之助, 1954. “中小工業の本質とその存在形態”, 中小企業の本質, 有斐閣, 東京.
- 辛田清喜編, 1969. 經濟地理學II, 朝倉書店, 東京.
- 辻本芳郎, 1978. 日本の在來工業, 大明堂, 東京.
- 李哲雨, 1990. “韓國江華地域莞草工藝品産地の生産流通構造”, 經濟地理學年報, 36(4), 21-44.
- 李哲雨, 1991a. 農村地場産業に関する經濟地理學的研究, 名古屋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李哲雨, 1991b. “地場産業研究の意義と課題”, 人文地理, 43(2), 39-61.
- 竹内淳彦, 1984. 技術集團と産業地域社會, 大明堂, 東京.
- 清成忠男, 1974. “地域開發と地場産業”, 地域開發, 116, 1-8.
- 青野壽彦, 1980. “地場産業と地域振興”, 地域開發, 190, 1-6.
- 板倉勝高・北村嘉行, 1980. 地場産業の地域, 大明堂, 東京.
- 風卷義考, 1958. “工業地理研究の展望”, 地理學評論, 31, 1-7.
- 合田昭二, 1971. “知多綿織物業の地域的存立基盤”. 地理學評論, 44(7), 498-514.
- 合田昭二, 1979. “東三河織物業の生産構造”, 地理學評論, 52(8), 439-451.
- Kie-joo Hyung, 1982. Les Precessus de changemennr de la Localisation de Activités Industrielles; Corée et France, Essai d'Etude Comparative, Universite de Paris I.